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이상욱 ·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  
의원입니다.

□ 서울시 내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철도사업이 타  
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 역차별 요소로 작용하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선을 위해 발의된 “수도권 역차별’ 기  
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의 재정사업  
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평가항목은 경

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나, 2019년 제도 개편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평가지표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지표는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편익산출 한계, 균형발전 효과 미반영 등의 한계로 서울시 낙후지역 해소 기회가 박탈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도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줄줄이 경제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이에 경제성에 치중한 평가 비중을 조정(60~70%→40~50%)하여 정책 평가 비중을 상향(30~40%→40~50%)하고, 경제성 평가 편익 항목을 개선·발굴하며, ‘지역균형발전 효과성’을 정책성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